

**영어 때문에 고통 받는 당신을 위해**



**저자: JEONGHO AN. (NANZO)**

**FACEBOOK ID: zep23co@hotmail.com**



## 목차

PART 1- 영어에 대한 필자의 생각 3p

PART 2- 영어의 숲-영어의 기본 구조 6p

PART 3- 영어의 숲-영어의 형식 10p

PART 4- 영어의 숲-영어의 형식2 15p

PART 5- 영어의 숲-사역동사와 12시제 23P

PART 6- 영어의 나무-조동사,수동태 29P

PART 7- 영어의 나무-to부정사,동명사 36P

PART 8- 영어의 나무-관계대명사,관계부사 45P

PART 9- 영어의 나무-접속사,비교급 50P

# PART 1-영어 때문에 고통 받는 당신을 위해 (영어에 대한 필자의 생각)

## 영어에 관련된 생각의 전환

### \*영어에 대한 개관\*

지금부터 내가 말해주고 싶은 영어의 기술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서 얻은 노하우이다. 한국에 있는 학원에서 사실 여러분에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 지 알 수는 없다. 이 글의 목적은 나와 함께했던 나의 귀여운 꼬맹이들이 조금 더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나의 이별 선물과 같은 것이다. 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접근하는 방법이 옳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사실 맞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은 나의 학생들과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이 채워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처럼 쓰고 말하고 듣고 읽는다고 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물론...특별한 곳에서는...부족할지도...ㅎㅎㅎ 영어를 못하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고 잘하지도 않는다. 난 지금 무엇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하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의 학생들이 영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고 있다.

### \*영어에 대한 잘못된 오해\*

사람들은 흔히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나는 듣기는 잘 되는데 읽기가 잘 안돼." 혹은 "나는 말하기는 잘 되는데 쓰기가 잘 안돼." 영어를 잘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듣기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독해가 신통치 않다면 그 학생은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듣기와 독해를 잘하는 학생이 말하기를 못한다면 이 학생 역시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우리나라에는 토익 900점대가 차고 넘치는데 정작 영어를 잘하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할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기에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20년 이상을 영어공부에 매진하면서 우리는 왜 여전히 영어를 잘하지 못할까?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영어를 4개의 분야로 나눠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서 한 분야를 더욱 잘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이 가능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닫혀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으로 인해 영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수 많은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정말 엄청난 돈을 영어에게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영어에게 해가 되는 독일까?

기본적으로 듣기와 말하기는 같은 개념이다. 예전에 과거의 여자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정호야~ 영어는 너가 말을 할 수 있는 만큼 들리는거야." 나는 그 때 단지 유학을 갔다 온 그녀가 샘이 났는지 그녀가 하는 말을 곧이 듣지 않았다. 사실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영어는 자기

가 말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의 대화를 예상할 수가 있다. 상대방의 대화를 예상한다는 것이 바로 듣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상의 범위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자신의 말하기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다. 듣기와 말하기의 단어 사용과 문법의 구조는 비교적 쉽고 이해가 빠르다. 반면에 읽기와 쓰기파트는 자신을 말하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듣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단 시간 내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읽기와 쓰기에서 사용되는 문법과 단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말로 이루어진 언어영역을 생각해 보자 자신이 언어영역을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단어? 문법? 물론 이것들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력"이다. 사고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한 읽기와 쓰기는 특히 쓰기는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다. 첫째도 독서고 둘째도 독서고 셋째도 독서이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읽기와 쓰기를 잘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하다. 물론 점수를 얻기 위해서 문제 패턴을 외우고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시험관의 눈을 피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학원에서 배우는 방법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당신은 영어와 더욱 친숙해질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의 길은 기본이 가장 충실해야지 그로 인해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처음부터 빠른 길로 가려고 했던 여러분들 때문에 영어강사들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오늘도 당신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것이다.

### \*영어를 접근하는 방법\*

답이 궁금한가? 답은 간단하다 영어의 숲을 먼저 익혀야 가능하다. 영어의 숲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가장 어렵지만 이 훈련이 영어를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현재 수능을 포함해서 각종 영어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영어의 숲을 아느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100%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얻는다 한들 자신은 항상 영어를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영어의 숲을 가르쳐준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진실이 아니지 싶다. 물론 한번에 깨닫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한번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어의 숲보다는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어디인지를 가늠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 방법으로 영어의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부터 4개의 분야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파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은 단 1개의 파트를 통해서 4개의 정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개의 파트 중에 1파트만 열심히 공부해도 나머지는 저절로 잘하게 된다. 바로 그 파트는 "쓰기"이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문장은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읽을 수 있으며 또한 들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쓰기는 기본적으로 단어사용과 문법의 구사력이 말하기에 사용된 구사력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의 훈련을 통해서 영어는 자신도 모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어의 쓰기를 잘 할 수 있을까? 바로 "문법의 정복"이다. 사람들은 문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어로 생각해 보면 간단한 일이다. 한국어를 읽으면 당신도 충분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영어이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이 필요한지도 각성하지 못한 채 무작정 모든 영어의 문법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쓰기 연습은 영어의 숲을 보게 하는 동시에 영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문법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판단력을 당신에 선물해 준다. PART 2부터 당신에게 필요한 문법과 영어의 숲을 보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 PART 2-영어 때문에 고통 받는 당신을 위해(영어의 기본 구조)

### \*영어의 뼈대\*

우리가 영어문법을 공부할 때 중요한 파트가 무엇일까? 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노노노노~ 모두 아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사의 정확한 이해이다.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 아무리 문법을 잘 알고 있더라도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어의 이해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내가 간과한 그 누구도 중요성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나의 실수 중의 하나는 단어를 암기할 때 뜻만 암기하고 단어의 품사를 외우지 않았던 것이다. 단어의 품사를 정확히 외우지 않게 되면 영어의 문장을 볼 때 뼈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해석이야 가능하겠지만 단어의 뜻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쓰기와 말하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시방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욱 영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품사는 모두 아시다시피 8개의 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 1) 명사- **student, book, computer, friend, water, rice, money** 등
- 2) 대명사- **I, you, he, she, we, this, another, some, all** 등
- 3) 동사- **say, run, study, go, eat, hate, like, love** 등
- 4) 형용사- **big, small, tired, hard, beautiful, great,** 등
- 5) 부사- **carefully, really, very, often,** 등
- 6) 전치사- **in, on, at, from. By, of, with** 등
- 7) 접속사- **and, but, or, for, so,** 등
- 8) 감탄사- **oh, bravo** 등

품사가 무엇인지는 각자 고민하고 공부해라.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품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외워야 한다.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품사가 문장에 쓰이는 위치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영어의 숲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그 단어의 뜻과 품사를 같이 외우기를 바란다.

## \*영어문장의 기본구조\*

영어는 어렵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너무나 어렵게 느끼겠지만 기본구조를 이해한 후 공부를 하면 사실 별거 없다. 영어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어 구조보다 어렵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마스터한 당신들에게 영어는 어려운 언어가 아니다. 단지 언어가 다르다고 느끼는 방향성의 차이일 뿐이다.

영어의 기본 구조는

# S + V + O

**S는 주어이며 명사와 대명사로 만들어진다.**

**V는 동사이며 자동사와 타동사로 이루어진다.**

**O는 목적어이며 명사와 대명사로 이루어진다.**

영어는 이 단순한 구조가 전부인 것이다. 여기다가 살짝 양념을 쳐서 돋보이게 하는 것일 뿐 차, 포 떼고 나면 단순하게 S+V+O만 존재하게 된다. 사실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역시 이 구조와 같다고 보면 된다. 주어와 서술어의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언어로 보고 있다면 그 개념부터 바꾸기를 권장한다. 한국어와 영어는 비슷한 구조이다. 주어가 이루어지는 품사, 동사가 이루어지는 품사, 목적어가 이루어지는 품사는 이미 설명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다른 품사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형용사, 관사, 소유격 +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 부사**

**전치사 + 명사(목적어)**

**접속사 + 주어+동사+목적어**

여기서 품사를 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부사+형용사+명사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다면 명사로 이해를 해야 한다. 즉 제일 마지막에 쓰인 품사가 나머지 다른 품사로부터 꾸밈을 받는 것이다.

**S는 주어이며 명사와 대명사로 만들어진다.**

V는 동사이며 자동사와 타동사로 이루어진다.

O는 목적어이며 명사와 대명사로 이루어진다.

형용사, 관사, 소유격 +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 부사

전치사 + 명사(목적어)

접속사 + 주어+동사+목적어

이 7개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제 영어를 말하고 쓰고 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법칙은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부+부+형+명(주어)+ 동사 + 관+형+명(목적어) 혹은

관+부+부+부+형+명+전+명(주어)+ 동사 + 전+명+전+관+형+명(목적어)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길게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런 이유로 품사가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단어 뜻을 많이 안다고 해도 품사를 모른다면 문장의 구조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다.

### \*단문/중문/복문\*

1) 단문~ 아주 간단하다.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문장이다.

The sun rises 이런 문장 구조가 단문인 것이다.

2) 중문~ 두 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리고 반드시 등위접속사의 의해 두 문장의 관계가 연결된다.

She has a car but he doesn't often drive. 이렇게 등위접속사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이 중문이다.

등위 접속사(and, or, but, so, for)를 사용할 경우는 2가지의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

- 1) **품사일치**~ She is cool and beautiful ----cool 과 beautiful은 같은 형용사이다. 만약 cool and beautifully 라고 문장을 썼다면 품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은 틀리게 된다.
- 2) **시제일치**~ She has a car but he doesn't often drive.---- 현재인 has 동사가 쓰였기 때문

에 등위접속사 뒤에 문장인 he doesn't often drive이 he didn't often drive라고 쓰였다면 시제가 틀리기 때문에 문장이 틀리게 된다.

3) 복문~ 간단하다. 등위접속사 이외의 다른 접속사를 사용했다면 복문이라 생각하면 된다. 주로 that절이 많이 사용된다. I didn't realize that the house was on fire. 이것이 대표적인 복문구조이다.

PART 2는 전체적인 영어의 구조를 간략하게 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영어의 전부이다. 수 많은 한국 영어 책들이 예쁜 미사어구를 넣어서 당신의 눈과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 실상은 별 도움이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영어책은 설명이 너무 어렵다. 예를 들면 **"원래는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그 동사와 어원이나 의미가 같은 명사를 목적어로 취해서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 이러한 목적어를 동족목적어라고 한다."** 이 무슨 복잡한 설명인가...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글을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멋진 한글에 현혹이 되면 영어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다. 절대로 한글로 쓰인 설명에 현혹되지 마라. 마지막으로 영어의 기본은 품사이다. 품사를 강조하지 않고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고 다른 선생님을 구하기를 추천한다. 그런 선생님은 2가지 경우 밖에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 품사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거나 몇 시간 전에 책보고 외워서 이야기 하는 그런 풋내기 선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내가 한국사람이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품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품사의 중요성을 몰라도 영어를 쓰고 말하고 읽고 듣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PART 3에서는 "영어의 꽃 중의 꽃" 형식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 PART 3-영어 때문에 고통 받는 당신을 위해(영어의 형식)

드디어 영어의 “꽃 중의 꽃” 영어의 형식을 공부할 차례이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영어문법책을 고를 때는 그 목차의 첫 번째에서 무엇이 먼저 쓰였는지 확인 하기를 바란다. 만약에 어설픈 부정사나 동명사 등이 목차의 첫 번째를 멋지게 장식하고 있다면 그 책은 그냥 쓰레기통에서 집어 넣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숲을 이해하기 전에 나무부터 이해하게 되면 절대로 당신이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 영어든 당신의 이루고 싶은 목표든 전부 다 숲을 이해하고 그 숲은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당신의 원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사실 한국의 잘못된 영어교육의 대표적인 피해자로서 사실 유학 중에 사실 처음부터 다시 영어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까지 물리게 되었다. 영어의 형식의 중요성은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영어교육의 현실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한 영어의 형식을 간과하고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작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영어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기 쉬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건 바로 여러분이 상대방의 실력을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영어교육을 당신이 받고 있더라도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은가? 결국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당신이나 영작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1형식부터 5형식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식에는 모든 문법이 녹아있다. 그래서 형식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은 모든 문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작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꽃 중의 꽃인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한다. 물론 학자들 마다 형식이 5형식 이상일 수도 이하일 수도 있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5가지 문장의 형식으로 전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형식의 구분\*

형식을 구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의 사실이 있다.

**부사와 전치사구는 문장의 형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훗날 영어의 문장을 파악할 때 부사와 전치사구를 빨리 생략해서 문장을 S+V+O로만 남게 하는 것이 독해의 속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 1) 1형식

**S + V** (완전 자동사)

1형식은 간단하다. 주어 + 동사 이것이 전부인 문장을 우리는 1형식이라고 부른다. 1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를 우리는 "완전 자동사"라 부른다. 완전 자동사는 멋진 남자 중의 남자인 동사이다. 그 어떤 미사어구를 붙이지 않아도 홀로 쓰이는 저 당당함. 느껴지지 않는가? 멋지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ㅎㅎㅎㅎ **완전 자동사의 특징은 목적어 없이도 홀로 쓰이는 것이 가능한 동사이다.** 형식을 분류하는 기준은 "동사"이다. 동사는 모든 품사 중에 으뜸 중의 으뜸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수 많은 동사의 분류를 필자를 통해서 새롭게 외워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미 외우고 있었지만 왜 외우고 있었는지 애매모호한 경우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필자가 요구하는 동사의 분류만 정확히 외우면 당신은 어느 정도 영어와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완전 자동사를 외워야 하는 이유는 1가지이다. 동사 바로 뒤에 "전치사"를 사용해서 명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동사 바로 뒤에 전치사가 쓰이지 않고 명사를 받았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전치사 + 명사" 라는 사실을 전치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어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적용을 해야지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당신이 부정사를 배우고 있어도 동명사를 배우고 있더라도 이 파트만 집중을 하고 다른 파트를 적용할 생각을 못한다면 당신은 영어와는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I let you ask everything to enter the gate.**

이 문장에서 당신은 몇 개의 문법이 녹아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역동사를 가르칠 수도 5형식의 문장을 가르칠 수도 부정사 파트를 가르칠 수도 타동사인데 전치사를 붙여야 할 것 같은 동사의 종류를 배울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형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한번에 보이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영어 교육 현실은 이 모든 것을 따로 가르치고 합쳐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을 고를 수는 있지만 영작이나 말하기가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1형식으로 돌아가서 1형식 완전 자동사의 종류를 보자

**Ring, reply to, stare at, insist on, flow, object to, consist of, differ from, lay, complain to, Wait for, live, respond to.**

훨씬 많겠지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는 공부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 동사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독해를 하게 될 때 혹시 동사 옆에 전치사 붙어 있다면 그 동사는 100% 자동사인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의 자동사를 업데이트를 시키기 바란다.

**I lay on the grass with my dog.**

이 문장은 1형식 문장이다. lay라는 동사 바로 옆에 전치사 on 이 붙어있다. 물론 전치사 on를 사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인 the grass가 나와야 한다. 문장의 형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략할 수 있는 2가지가 부사와 전치사구라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on the grass 와 with my dog 는 문장의 형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 다 전치사구이기 때문이다. 즉 두 개의 전치사구가 생략되고 주어 와 동사인 I lay 만 남게 되어서 1형식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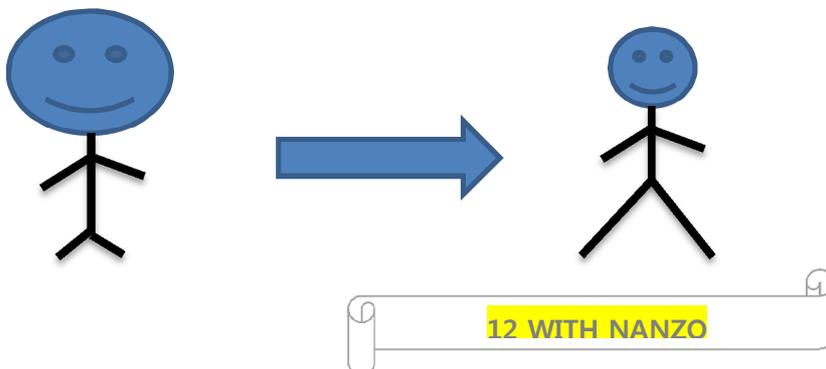
**ㄱ) 유도부사--- [THERE + BE 동사 + 주어]**

유도부사는 왜 사용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필자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유도부사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머리가 커 보이는 문장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커 보이는 것 보다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문장이 좀 더 세련되고 예뻐 보이지 않아서일까?

예를 들면

**No smoke without fire is there**

라는 문장이 있다 물론 이 문장은 1형식이다. Without fire 는 전치사구로 생략 되고 there는 부사로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문장은 No smoke is만 남게 되어서 주어 + 동사인 1형식을 충족 시켜준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보자 너무 주어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가? 마치 가분수처럼...마치 이런 느낌? ㅎㅎㅎ 그래서 문장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There is no smoke without fire** 이렇게 말이다. 유도부사에 중요한 것은 There 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단,복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유도부사를 확인을 하면 반드시 주어가 단,복수인지를 확인 하기를 바란다.



## 2) 2형식

**S** + **V** (불완전 자동사) + **C** (보어-명사,형용사)

2형식의 불완전 자동사는 완전 자동사를 동경해서 똑같이 행동하고는 싶은데 아직 용기가 없는 놈이다. 왜 항상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 있지 않은가? 뭔가 남들 앞에서 앞장은 서고 싶은데 실제로 멍석을 깔아주면 주저하는 놈들...ㅎㅎㅎ 불완전 자동사는 그런 놈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뭔가를 데리고 다녀야 한다. 그것이 바로 C(보어)이다. 보어의 매력은 유일하게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단어가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을 만난다면 2가지 경우이다. 2형식 이거나 문장이 틀렸거나...ㅎㅎㅎ 물론 목적보어 역시 형용사가 사용 가능하다. 그것은 5형식에서 배우자.

형용사를 좋아하는 2형식의 동사가 따로 있다. 그 종류는 크게 3가지 분류로

**Keep, stay, continue, remain ----keep형 동사 (유지, 계속)**

**Become, come get, grow, make, turn, fall, go, run ----become형 동사 (상태의 변화)**

**Seem, appear, look, smell, sound, feel, taste, touch. ----지각동사**

이 동사를 당연히 외워야 한다. 그리고 이런 동사를 만났을 경우는 뒤에 형용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라. 물론 영작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영작을 공부하는 것이 역시 문제의 정답을 고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뒤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고르게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명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I hope your dream will come (true/truly)** 이런 문제가 있다면 come의 품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제 빨리 과거의 공부했던 것을 적용을 해야 한다. "동사를 꾸며 줄 수 있는 것이 부사였지?" 그러면서 부사를 고른다면...노노노노...그래서 우리는 동사의 분류를 외워야 하는 것이다. Come은 become형 동사에 속하는 2형식 불완전 자동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당신은 true를 골라야 되는 것이다. 동사의 분류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외우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 ㄱ) 보어의 명사와 목적어의 명사

사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 목적어에서도 명사를 사용하고 보어에서도 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2형식인지 3형식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사실 별거 없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 다만 지금 떠오르지 않는 것 뿐이다.

예를 들면

**I am a boy.** 란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이 2형식인가? 3형식인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명사의 관계를 파악하면 되면 내가 소년이고 소년이 나라면 두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보어이다.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말이다.

반면에

**He buys the ball.** 란 문장 역시 the ball 라는 명사를 사용했다. 하지만 주어와 명사와의 관계를 보자. 그가 공인가? 물론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보어를 사용한 2형식이 아닌 목적어를 사용한 3형식이다.

다음 시간에는 3형식과 4형식을 공부할 것이다. 문장의 형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기본이 충실해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형식의 파악은 영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단지 문제의 정답을 고르기 위한 식의 공부 방법은 지양하기를 바란다. 영어는 물론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한 당신의 멋진 스펙이 되어 주기도 하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시험과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이다.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단지 시험과목으로만 치부한다면 너무 슬피지 않을까?

## PART 4-영어 때문에 고통 받는 당신을 위해(영어의 형식2)

### 3) 3형식

**S** + **V** (완전 타동사) + **O** (목적어)

#### \*필자가 생각하는 타동사의 탄생배경\*

이제 3형식이다. 1,2형식과 3,4,5형식을 자동사를 쓰는 문장과 타동사를 쓰는 문장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완전 타동사는 새로운 세력을 꿈꾸기 위해서 기존의 자동사를 탈퇴하고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한 멋진 개혁자 같은 놈이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동사들이 역시 멋진 개혁을 성공 시켰다. 자동사는 사실 혼자서만 너무 빛나는 놈이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친구들 특히 명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현실은 혼자서만 빛나는 놈들을 세상에 별로 없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세상에서 멋지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데 혼자서 모든 것을 상대하기에는 자신도 없고 벅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힘을 모아 새로운 독자노선을 개발한다. 그것이 바로 타동사당이다. 정치적으로 명사는 자동사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같이 옆에 있고 싶으면 뇌물인 전치사를 옆에 데리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분명히 매번 사실 품사 중에 명사에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사 앞에서는 언제나 2인자 같은 느낌...분명히 떨떠름했을 것이다. 그 때!! 자동사들의 횡포에 견디지 못한 힘이 약한 동사들이 명사에게 손을 내민다. **“새로운 동사당을 만들 생각ियो. 이름은 타동사당 당신 명사들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 타동사당은 엄청나게 힘이 커질 것이라 생각하오. 대신 약속 하나 하겠소. 당신들이 우리들과 새로운 당을 만들어 준다면 언제나 당신들은 내 옆에 있을 것ियो. 지긋지긋한 뇌물 전치사 없이 말ियो.”** 명사들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가장 무리 수가 많았지만 언제나 눈치를 봐야 했던 명사종족들... 그들은 새로운 동사들과 함께 “타동사당”을 만든다.

설명한 것처럼 **타동사는 자동사와는 다르게 100% 목적어를 취해야 한다.** 타동사를 사용시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 \*타동사의 전치사구\*

과거의 한국교육은 아래의 표가 왜 3형식이라는 충분한 설명 없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필자의 기억으로는 나의 훌륭한 선생님들 역시 가르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I ban you from unexpected situation.** 이런 문장이 있다면 우리는 그 동안에 ban이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from를 쓴다고 외우는 교육이 대부분 이었다. 사실 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문제의 정답을 못 고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당신은 저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Ban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물론 ban은 타동사이다 왜냐하면 뒤에 전치사가 없이 목적어 you를 바로 받았기 때문이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형식을 정할 때 생략이 가능한 2개의 품사는 부사와 전치사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from unexpected situation은 전치사구로 생략이 되고 결국 남게 되는 문장은 I ban you 주어+동사+목적어로 3형식의 문장을 충족하게 된다. 지금부터 외워야 하는 타동사의 전치사구는 타동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rob a of b가 맞는 문장이지 rob of로 시작을 한다면 문장이 자동사로 쓰인 것처럼 보이기에 문장이 틀린 것이다. 물론 a가 생략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 생각하지 말자.

### A OF B

Remind, demand, inform, deprive, accuse, warn, rob, clear

### A FROM B

Prevent, keep, stop, prohibit, discourage, tell, distinguish, separate, ban

### A AS B

Regard, look upon, count, consider

### A FOR B

Praise, thank, forgive, excuse, punish, blame

### A with B

Provide, furnish, supply, present, trust

### A INTO B

Divide, break, charge

**\*자동사로 헛갈리기 쉬운 타동사\***

**MARRY WITH (X)**

**ENTER INTO (X)**

**RESEMBLE WITH (X)**

**DISCUSS ABOUT (X)**

타동사들이기 때문에 설사 Marry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전치사 with를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 사람이기에 고민하는 문제이다.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한국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받을 때 당연히 전치사를 필요치 않는다. 탄생의 기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그것이 타동사와 명사의 약속사항이다.

한가지 예외로 ENTER INTO 는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 이 때의 뜻은 “들어가다”가 아닌 “시작하다”이다. 유념하기를 바란다.

#### 4) 4형식

**S + V<sub>(수여동사)</sub> + 사람O<sub>(목적어)</sub>**  
**+ 사물O<sub>(목적어)</sub>**

어느 단체가 형성되고 그 단체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가 되지 않는 사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잦은 투쟁과 분쟁으로 상처와 멍으로 얼룩지게 된다. 물론 필자가 말하는 통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통

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도 탁월한 존재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탁월한 존재를 인정치 못하고 일반 무리와 같이 통제하려 든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의 발전 없을 것이다. 수여동사 역시 그런 탁월한 놈이다. 타동사당이 창설되고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타동사 중에서도 더욱 강한 종자들이 탄생한다. 그것이 바로 수여동사이다. 수여동사의 특징은 목적어를 전치사 없이도 2개나 받을 수가 있다. 이 얼마나 위풍당당한 모습인가? 하지만 수여동사도 목적어를 2개 받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은 반드시 처음에는 사람목적어를 사용하고 후에 사물목적어를 사용 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사물의 정의가 필요한데 사물은 사람 이외의 모든 것이다. 동물도 곤충도 식물도 모두 사물로 취급해야 한다.

수여동사의 특징은 3형식인 완전타동사로도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S + V** (수여동사) + **사물O** (목적어)

+ **전치사** + **사람O** (목적어)

이런 식의 구조로 바꿀 수가 있다. 이 구조가 왜 3형식인가? 당연하다. 전치사+사람목적어는 전치사구로 생략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주어+동사+사물목적어만 남게 되어서 S+V+O를 충족하는 3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수여동사의 종류와 그 수여동사가 3형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전치사도 공부해 보자.

**give형 동사 (전치사 to)**

**Give, hand, send, tell, teach, lend, show, write**

**buy형 동사 (전치사 for)**

**Buy, leave, make, get, choose, cook, find**

**ASK형 동사 (전치사 Of)**

## Ask

예를 들어서

**I buy you the gift** 란 문장이 있다면 주어+동사+사람+사물을 충족 시켜서 4형식의 문장을 완성하게 된다. 여기서 3형식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I buy the gift for you** 이렇게 전화하면 된다.

### \* 주의해야 할 동사들 \*

ㄱ) 4형식만 되는 동사 (3형식 전환 불가능)

**Cost, save, envy, spare**

ㄴ) 4형식이 불가능한 동사(3형식만 가능)

**Explain, suggest, introduce, confess**

이 8개의 동사들은 하나는 종자는 같지만 탄생이 남달라서 다른 하나는 너무나 되고 싶지만 흉내만 내는 그런 동사이다.

ㄱ) 4형식만 되는 동사는 태어날 때 4형식의 종자로 태어났지만 그 힘이 미약해서 3형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진다.

예를 들면

**The mistake cost him the loss of job. (o)**

이 문장은 주어+동사+사람+사물로 4형식의 문장을 충족한다. 의미도 일반적인 "그 실수로 그가 직업을 잃었다."이다.

하지만

**The mistake cost the loss of job to him. (x)**

이런 식으로 3형식으로 전환을 억지로 시키면 뜻 자체가 와해가 된다. 마치 the loss of job이 살아있는 생물체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아!! 하지만 이 동사들 역시 주어+동사+목적어인 3형식 문장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동사들이 수여동사로 쓰였을 때만 3형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ㄴ) 4형식이 불가능한 동사는 3형식으로 태어나서 4형식 동사인 수여동사가 너무나 되고 싶어서

흥내를 내는 놈들이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시대에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일본인처럼 살아가고 싶어했던 그들이 이런 종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I introduce the plan to you. (o)**

**I introduce you the plan. (x)**

문장을 분석해보자 주어+동사+사물+전치사+사람 이거 얼핏 보면 4형식인 수여동사가 3형식으로 전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런 종자를 외우지 않는다면 이 문장 4형식으로 전환을 해도 맞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4개의 동사를 외우기를 바란다.

## 5) 5형식

**S** + **V** (불완전타동사) + **O** (목적어) +

**O.C** (목적보어-명사,형용사)

드디어 형식의 마지막인 5형식이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뉘는데 5형식은 형식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있지만 뭐...내가 학자의 쓸데없는 싸움에 동참할 필요도 없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설명을 하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5형식은 "3형식+2형식=5형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목적보어 역시 명사와 형용사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즉 2형식의 보어성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5형식을 공부를 할 때는 형식을 나누려고 하기 보다는 문장 속에 녹아있는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말을 했지만 5형식의 문장은 3형식이라는 큰 틀에 2형식이 녹아있는 구조이다.

예를 들면

**I think her beautiful.** 이 문장은 다시 3형식과 2형식으로 문장을 분리할 수가 있다.

**I think her. (3형식) 주어+동사+목적어**

**She is beautiful. (2형식) 주어+동사+보어**

이렇게 문장을 쪼개는 연습을 해야지 5형식의 문장이 더욱 잘 보이게 될 것이다.

###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능동/수동 관계\*

지금부터 말하게 되는 내용은 단지 5형식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분사구문, 수동태 등 다양한 곳에서 적용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한다. 사실은 전부 다른 파트에서 배우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에 해결해 보자.

**주어=사람인 경우는 동사=능동=~ing**

**주어=사물인 경우는 동사=수동=p.p형**

예를 들면

**I broke the window.** 는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능동태로 쓰인 것이고

**The window was broken by me.** 는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인 것이다.

이 형태가 일반적인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는 문장이다.

이제는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에 적용을 시키자면

**I see the carpenter sawing the tree.** 는 목적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보어에 능동인 ing를

**I see the tree sawed by the carpenter.** 는 목적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목적보어에 수동을 사용한 것이다.

분사인 경우에도 역시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수동을 사람인 경우에는 능동을 받으면 된다.

예를 들면 **sleeping babies** 는 babies가 사람이기 때문에 sleeping인 능동형태로 사용되고

**Damaged cars** 는 cars가 사물이기 때문에 damaged인 수동형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다. 기본적으로 85%는 이 규칙대로 움직이며 나머지 15%의 3가지의 능동/수동의 예외를 설명하겠다.

## \*85%의 규칙의 예외인 능동/수동의 관계\*

### 1) 감정 형용사(동사)를 사용한 경우

**The game is exciting and I am excited.**

이 문장은 내가 고등학교 때 외운 문장이다. 그냥 무조건 외워라 그리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혼란스러울 때 이 문장을 머리 속에서 끄집어 내어 파악해라. 주어가 사물이지만 감정 형용사(동사)인 excite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어가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능동이다. Bore, surprise, exhaust 등 이런 류의 감정 형용사를 사용시에는 반드시 거꾸로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람일 때는 수동, 사물일 때는 능동.

### 2) 해고나 국회의원 선출

**I was fired** 는 주어가 사람이지만 해고는 언제나 당하는 수동이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써야 하지만 당신이 기업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I fired you**라는 기본적인 주어가 사람일 때 능동으로 쓰는 규칙을 사용하면 된다.

**People love the president elected by people.** 는 the president는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되는 수동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electing이 아니라 elected가 사용 되어야 한다.

### 3) Toy story

만화영화를 보게 되면 장난감들에게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물체로 묘사가 된다. 즉 "의인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한다. **The toy wants to have a trip with his friends.** 는 장난감을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능동으로 문장을 써야 한다.

이로써 1형식부터 5형식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다. 사실 형식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세부적인 문법을 공부해도 두려운 것이 없다. 그 동안은 형식을 공부하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파트를 공부할 때 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형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세부적인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는 느낌이 아닌 기존의 자신이 보고 있던 영어의 숲이 한층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사의 분류 암기는 필수이다. 동사의 분류를 하지 않는다면 영어는 평생가도 어려운 언어일 것이다. 단어의 품사와 형식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영어의 숲을 보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

## PART 5-영어 때문에 고통 받는 당신을 위해(사역동사와 12시제)

###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을 시키다”라는 개념의 동사이다. 사역동사를 이번에 공부하게 되면 여러 파트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부정사 파트에서 수동태 파트에서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에서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를 하고 다른 파트에서 사역동사가 나오면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공부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죽게 된 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친구가 제안한 탈옥을 뿌리치고 자신의 신념대로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선택하지만 공자가 이런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공자에게는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즉 “효”를 그 어떤 법보다 상위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탈옥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2가지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영어도 사실은 여러 파트에서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지만 새로운 파트라고 해서 기존의 것을 적용하는 것을 잊는다면 영어는 항상 당신에게 어려운 과목일 것이다.

## “Make have, let, help, get, 지각동

## 사” + O<sub>(목적어)</sub> + “동사원형”

물론 “Help”, “get”은 준사역동사로 “지각동사”와 함께 TO부정사가 올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무시를 하고 동사원형이 온다고 생각을 하자. 문제에서는 절대로 원형부정사와 TO부정사가 같이 문제의 답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동사원형”은 원래 목적보어의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5형식의 문장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I let people (to repair/ repair) the house.** 라는 문장이 있다면 let이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보어 자리에 당연히 동사원형 **repair**를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I help people (to repair/ repair) the house.** 이 문장은 help가 쓰였기 때문에 to repair/ repair 모두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식의 문제는 제출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I had my hair cut.** 이 예문을 보고서 had라는 동사로 인해서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원형인 cut를 쓰였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역동사를 생각하기 이전에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적어인 my hair가 사물이기 때문에 수동인 P.P형이 와야 하는데 cut의 과거분사 형태가 같은 cut이기 때문에 동사원형처럼 보일 뿐이다. 즉 동사로 쓰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사인 형용사로 쓰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I had my hair cut. 의 구조는 주어 +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형용사)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이다.** 다른 문장으로 **I have a bag stolen.** 이 문장 역시 마찬가지로 분사가 쓰인 대표적인 문장이다. **분사는 동사가 아니다. 동사처럼 보일 뿐 품사는 형용사이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5형식은 3형식 + 2형식의 느낌이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사의 도움을 통해서 더욱 간결하고 깔끔한 5형식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사역동사는 정말로 심심하면 나오는 문장이면서도 헷갈리는 문장이다. 그 이유는 사역동사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 즉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고려해야 문장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12시제\*

영어는 말 그대로 12가지로 문장을 표현을 시제 별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하지만 규칙이라는 것이 이 안에도 숨어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시제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나머지 과거시제와 미래시제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간과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 12시제에는 우리나라에는 개념이 없는 "완료"라는 문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시제의 정확한 이해가 영어를 더욱 잘 할 수 있는 포인트이다.

**Be+ p.p 수동**

**Have+ p.p 완료**

**Be+~ing 진행**

이 3가지 개념을 언제나 기억해 두기를 바란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다.

자 이제 12시제를 공부해 보자. 12시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시제만 공부하면 금방 해결이 된다.

**I give you the gift.** 이 문장을 가지고 12시제를 만들어 보자

### **\*현재시제\***

1) **단순현재**- 단순 현재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현재시제를 말한다. 인칭과 단/복수로 인해서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그 정도는 스스로 공부해라. 그래서 현재 시제는 같다.

**I give you the gift.**

2) **현재진행**- 현재진행의 공식은 **"be+~ing"**이다. 해석 그대로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된다.

**I am giving you the gift.**

3) **현재완료**- **"have+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완료는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이다.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현재완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연속된 과정"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I dream to be a singer** 와 **I have dreamed to be a singer.** 라는 문장은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현재 완료가 쓰인 후자인 문장에는 "간절함"이 녹아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 문장은 현재에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후자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자신의 간절함과 바램이 더욱 녹아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다른 예문을 들면 **I wait for you for 2 hours.** 와 **I have waited for you for 2 hours.** 이 2개의 문장도 가볍게 생각하면 똑 같은 "나는 너를 2시간 동안 기다렸어."라는 문장이지만 후자의 의미는 더욱 강한 의미이다. "나는 너를 이 곳에서 줄 곧 2시간 동안 기다렸어."라는 의미로 들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2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사람의 마음상태가 표현이 안되지만 후자인 완료문장을 쓰인 문장은 충분히 화자의 마음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완료가 매력적인 시제인 것이다.

**I have given you the gift.**

4) **현재완료진행**- 현재완료진행은 사실은 “순서”이다. 공식을 만드는 즉 “**현재완료+현재진행=현재완료진행**”이다. “[have+p.p]+ [be+~ing]”로 여기서 “**p.p 와 be**” 더해져서 새로운 형태인 과거분사 “**been**”으로 탄생하게 된다. 즉 “**have been ~ing**”이다.

**I have been giving you the gift.**

**\*과거시제\***

5) **단순과거**- 동사의 과거형 “**~ed**”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 불규칙 동사들도 있지만 그건 각자 공부하기를 바란다.

**I gave you the gift.**

6) **과거진행**- “**was/were ~ing**”의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

**I was giving you the gift.**

7) **과거완료**- 과거완료는 “**had+p.p**”로 과거의 이전 과거인 대과거에서 과거까지의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에는 과거의 사실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 dreamed to be a singer** 와 **I had dreamed to be a singer.** 라는 문장이 있다면 전자는 과거의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현재도 되고 싶은지는 알 수가 없지만 후자는 과거에 가수가 되고 싶었고 현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I had given you the gift.**

8) **과거완료진행**- “**had been ~ing**” 로 바꿔주면 된다.

**I had been giving you the gift.**

## **\*미래시제\***

**\*미래시제는 “Will+현재시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 **9) 단순미래**

**I will give you the gift.**

### **10) 미래진행**

**I will be giving you the gift.**

### **11) 미래완료**

**I will have given you the gift.**

### **12) 미래완료진행**

**I will have been giving you the gift.**

이로써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숲을 파악하는 품사, 문장의 형식, 12시제를 공부를 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3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실력의 발전은 꿈도 꾸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또 읽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를 바란다. 영어의 숲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사의 분류를 외우는 것은 필수이다. 동사의 분류를 정확히 모른다면 문장의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영어의 숲을 마치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자.

**S는 주어이며 명사와 대명사로 만들어진다.**

**V는 동사이며 자동사와 타동사로 이루어진다.**

**O는 목적어이며 명사와 대명사로 이루어진다.**

**형용사, 관사, 소유격 +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 부사**

**전치사 + 명사(목적어)**

**접속사 + 주어+동사+목적어**

**부사와 전치사구는 문장의 형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어=사람인 경우는 동사=능동=~ing**

**주어=사물인 경우는 동사=수동=p.p형**

**Be+ p.p 수동**

**Have+ p.p 완료**

**Be+~ing 진행**

**S+V**

**S+V+C**

**S+V+O**

**S+V+사람+사물**

**S+V+O+O.C**

**MAKE, HAVE, LET, HELP, GET, 지각동사 + O + 동사원형**

이 틀을 가지고 영어를 재 해석하는 연습을 매일같이 하기를 바란다. 지문을 볼 때 해석과 정답을 고르기 위한 공부라 아니라 독해 속에 녹아있는 많은 문법들을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길이다. 사실 당신은 간과하고 넘어가지만 독해를 하기 위한 지문은 정말로 잘 쓰인 글이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부터는 영어의 나무를 공부할 것이다.

## PART 6-영어 때문에 고통 받는 당신을 위해(영어의 나무-조동사,수동태)

이제부터는 영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영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들을 배울 것이다. 필자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설명할 생각은 없다. 다만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당신이 앞으로 말하기를 할 때 영작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만 요약적으로 설명할 생각이다.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들은 스스로 공부하기를 바란다.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당신은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당부를 하지만 절대로 영어의 나무부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조동사\*

조동사는 앞으로 해석할 때나 쓰이게 되지 특별히 당신이 공부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한다. 조동사를 모른다고 해서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해석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조동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조동사 + 동사원형”** 이다. 그 수많은 조동사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들은 다 잊어버려라. 그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점점 당신과 멀어지는 것이다.

조동사는 무엇일까? 조동사의 종류를 배워보자.

#### 1) Can(could)=be able to=be capable of ~ing

이 놈들은 **“능력,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할 수 있다.”** 이것 만 기억하자.

#### 2) May(might)

**“허가”, “권유”, “추측”**를 표현하는 조동사이다. 권유는 일반적으로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MUST”** 나 **“SHOULD”**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표현은 때때로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MAY**를 사용하기를 권한다. 이 표현은 **“해주었으면 한다.”**라는 완곡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허가와 추측을 할 때도 **MAY**를 많이 사용한다.

### 3) Must=Have to

가장 강제성을 표현하는 조동사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Can 이나 may는 과거형태가 could 와 might로 존재하지만 must는 과거형태가 없기 때문에 have to의 과거형태인 had to로 전환해야 한다. Must는 가장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must를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 4) should=ought to

이 표현은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지만 must 보다는 강제성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강제성의 강도의 조동사를 보게 되면

**Must=have to > had better > should= ought to > may(might) > can(could)**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

### 5) will (would)

Will 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이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

### 6) Had better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쓰이기는 하지만 사실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had better를 한 단어로 볼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한다. Had가 들어갔기 때문에 have의 과거형태가 아니다. 현재 시제로 had better인 것이다.

### 7) Used to

**Used to :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원형: 일반적인 “~사용되어진다”**

**Be used to ~ing: “~익숙하다.”**

그냥 고민하지 않고 외우기를 바란다. 하나 기억할 것은 “used to”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항상 과거시제로 사용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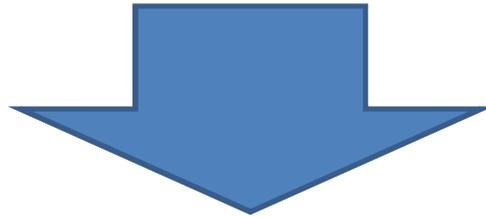
지금까지 조동사의 최소한을 배웠다.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너무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다 사용할 수가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조동사에 대한 이미지는 충분하다.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을 공부하려면 할수록 당신의 머리 속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엄칠 것이 분명하다.

## \*수동태\*

### \*수동태의 개관\*

수동태는 사실 이미 우리는 배웠다. 단지 구체적인 형태를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영어의 숲을 공부할 때 능동/수동의 관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수동태의 기본적인 형태는

**S + V** (완전 타동사) **+ O** (목적어) 인 능동태가



**O + be p.p + by s** 인 수동태로

변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I invented the game console.** 란 문장이 있다면 간단하게 수동태로 전환하게 되면

**The game console was invented by me.** 라는 문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수동태의 특징은 문장을 만들 때 85%가 주어가 “사물”이라는 것이다. 이 전에도 이 법칙을 설명을 했다. 주어가 사물로 쓰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동태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사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물체이다. 그렇다면 15%의 예외가 무엇일까? 이것도 이미 설명을 했다. 영어의 숲에서 참조하기를 바란다.

## \*수동태의 종류\*

항상 한글이 쓰인 위치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외우지 않아도 금방 이해가 가능하다.

### 1) 진행 수동

진행형의 공식이 "be ~ing" 고 수동태의 공식이 "be p.p"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공식을 합치게 되면 "**be being p.p**"가 된다.

### 2) 완료 수동

완료형의 공식이 "have p.p" 고 수동태의 공식이 "be p.p"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공식을 합치게 되면 "**have been p.p**"가 된다.

### 3) 미래 수동

미래형의 공식이 "will+동사원형" 고 수동태의 공식이 "be p.p"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공식을 합치게 되면 "**will be p.p**"가 된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존의 알고 있는 공식으로도 새로운 공식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기본적인 것을 적용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자.

## \*행위자가 궁금하지 않을 때"-by 행위자는 생략한다.

외국에서 문법을 공부할 때 수동태는 이렇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넘어간다. 아마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수동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필자는 생각을 한다.

예문을 들어보자

**My car was stolen last night.**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어 보면

**Someone stole my car last night.** 이다. 차를 도난 당한 것이 중요하지 차를 훔쳐간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도 someone이다. 그렇기 때문에 by someone은 불필요한 정보이다. 수동태로 문장을 만들 때는 2가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는 지금처럼 행위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by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와 조금 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목적어를 주어로 전환시켜서 목적어가 좀 더 주목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I was broken the window yesterday.**라는 문장은 "나"라는 것이 좀 더 비중이 있는 문장이다. 유

리창이 깨진 사실보다는 유리창을 깨뜨린 사람이 “나”라는 것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 문장이지만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The window was broken by me.** 이고 여기서는 “창문”이 깨진 것이 훨씬 더 강조된 문장이다. 즉 사물이 목적어로 쓰였을 때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는 수동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만들 때는 항상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목적어 1만을 주어로 사용해서** 수동태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보는 것이 4형식의 수동태와 5형식의 수동태를 이해하기 쉽다.

#### **\*4형식\***

**I (주어) bought (동사) you (목적어 1) the gift (목적어 2)**

기억하자 항상 수동태로 전환 시에는 목적어 1만 주어로 가능하다. 그래서

**You were bought the gift by me.** 로 변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목적어 2를 주어로 사용하는 수동태를 만들고 싶다면 간단하게 목적어 2를 목적어 1의 자리로 가게끔 문장을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변환하면 되는 것이다.

**I bought the gift for you** 이렇게 3형식으로 전환 후에 문장을 보면 이제는 3형식으로 목적어 2인 the gift가 목적어 1의 자리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꾸어 주면

**The gift was bought for you by me.** 로 변환이 가능하다.

#### **\*5형식\***

**I(주어) want(동사) you(목적어 1) to study English(목적보어) immediately.**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어 주면 목적어 1인 you를 주어로

**You are wanted to study English immediately by me.**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주면 된다.

### \*사역동사의 수동태\*

“사역동사+목적어+동사원형”은 이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한다.

**I let the people repair the house.** 사역동사 let를 사용한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을 하게 되면 **The people are let to repair the house by me.**이다. 즉 기본문장에서는 사역동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목적보어에 자리에 쓰이는 동사를 동사원형으로 문장을 완성했지만 그 문장이 수동태로 전환 될 때에는 반드시 **동사원형에서 to 부정사로** 전환을 해야 한다.

### \*수동태의 의문문\*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서 변환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

1) **Did I buy the window yesterday?** (능동태의 의문문)



2) **I bought the window yesterday.** (능동태의 평서문)



3) **The window was bought yesterday by me.** (수동태의 평서문)



4) **Was the window bought yesterday by me?** (수동태의 의문문)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수동태의 의문문이 완성이 된다.

###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

(Have, possess, lack, last), (resemble, fit, suit), (become, equal, meet, hold)

**\*by 이외의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동태**

**Be surprised at ~에 놀라다.**

**Be filled with ~으로 가득 차다.**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을 두다.**

**Be known to ~에게 알려지다.**

**Be known by ~로 알 수 있다.**

**Be known as ~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로 유명하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간단히 조동사와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조동사는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문제에서도 제출빈도가 낮고 독해에서도 조동사를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의미가 와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수동태는 대부분이 주어가 사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반드시 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자.

## PART 7-영어 때문에 고통 받는 당신을 위해(영어의 나무-to부정사,동명사)-영어의 두 번째 비밀

드디어 영어의 태백산맥과 함경도에 위치한...무슨 산맥인지...모르겠지만!! 여튼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법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다. 한국 사람들은 to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한 거부감이 다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의 전환만 하게 된다면 to부정사와 동명사는 같은 형태의 문법이며 가장 쉬운 문법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 공부하면 어려웠던 이유는 단 하나!! 설명이 어렵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간단하게 이해해 보자.

### \* 왜 to부정사와 동명사를 사용하는 것일까? \* - 영어의 비밀 -

to부정사와 동명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문에서 동사 2개 이상이 필요할 때이다. 기본적으로 단문을 구성하는 문장 구성요소는 주어+동사+목적어+이다. 만약 등위 접속사나 종속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단문인 상태로 동사를 1개 더 사용하고 싶다면 그 때 to부정사나 동명사를 사용하면 된다. to부정사와 동명사를 사용하게 되면 목적어를 또 받을 수가 있다. 결국 단문으로 이루어진 문장이기는 하지만 to부정사나 동명사를 사용한 문장을 만나게 되면 to부정사와 동명사의 수를 가지고 문장을 나누어서 생각하기를 바란다. to부정사와 동명사를 이해하게 되면 영어와 한국어가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증거가 도출되는데 한국사람이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대본을 외워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언제나 대화는 그들에게 대본 없는 생방송 드라마이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영어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다..하하하

**A: I go~**

**B: go where?**

**A: I go to school.**

**B: why?**

**A: I go to school for studying~**

**B: studying of what?**

**A: I go to school for studying English.**

**B: when?**

**A: I go to school for studying English every Tuesday.**

**GO**라는 본동사가 있지만 이렇게 **STUDY**라는 또 다른 동사를 단문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동명사나 **to부정사**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야 한다.

이 대화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없는가? 한국 사람은 매일 마지막 문장을 생각해서 이야기 하려고 노력을 한다. 물론 이 문장은 어렵지가 않은 문장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긴 문장을 미리 생각한 후 말하려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A는 사실은 I GO~라는 말만 하고 싶었지만 B의 질문들로 인해서 대답이 자연스레 길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독해를 할 때 문장의 끝에서 앞으로부터 해석을 하도록 배웠다. 사실 읽기와 듣기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방법이 “**직독직해**”이다. 왜!! “**직독직해**”를 해야만 하는가? 이 대화처럼 영어는 뒤에서 해석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대화에서 알 수 있겠지만 **A는 단지 I GO 만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I GO TO SCHOOL FOR STUDYING ENGLISH EVERY TUESDAY. 란 문장은 4번의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대답이다.** 실제로는 제일 마지막 문장을 듣거나 읽기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EVERY TUESDAY 부터 들으려고 하거나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로 절대로 영어의 실력이 향상 될 수가 없다. 사실 당신이 특히 듣기에서 EVERY TUESDAY부터 해석하려 한다면 이미 듣기 방송이나 너의 외국인 친구는 다른 문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을 것이다. 결국 계속해서 밀리는 현상이 생겨나 결국에는 “멍~”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독직해**”를 하려고 해야 한다. 당신은 통,번역가가 꿈이라면 다른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하려는 노력은 지양해라. 해석은 당신만 이해하고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된다. 절대로 완벽하게 해석하려는 바보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to부정사\***

**I hope be a singer. (x)**

**I hope to be a singer. (o)**

“**hope**” 와 “**be**”는 품사가 둘 다 동사이다. 처음에 설명을 했지만 품사를 모르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잔소리 같지만 반드시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 품사까지 같이 외우기를 바란다. 여하튼 동사가 2개이기 때문에 단문으로 문장 구성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to be**”라

는 to부정사로 표현함으로 문장을 깔끔하게 완성할 수가 있다. 한국어 해석을 하면 "나는 가수가 되기를 희망해."라는 표현인데 "되다"와 "희망하다" 모두가 동사이다. 우리는 한국어를 너무나 잘 하는 원어민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 없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바로 "되다"를 조사와 함께 "되기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영어에서는 to부정사를 사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이다.

### **\*to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

**Agree, ask, attempt, decide, expect, fail, hope, offer, promise, refuse, ready, want, wish**

이 동사가 문장의 본동사로 쓰였다면 나머지 다른 동사를 반드시 "to"를 사용한 to부정사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면

**I decide to lose a weight. (o)**

**I decide losing a weight. (x)**

이 문장에서 보면 "decide" 가 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lose" 라는 두 번째 동사를 "to lose"로 표현을 해야 한다.

### **\*to부정사의 부정\***

NOT + to부정사 이다.

**I decide **not to lose** a weight.**

### **\*목적보어를 부정사를 취하는 본동사\***

**Advise, allow, ask, cause, enable, encourage, expect, force, intend, invite, order, persuade, permit, Warn, want, teach, tell, recommend.**

동명사와 to부정사의 차이는 단지 어떤 본동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ing" 혹은 "to"를

붙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I advise you (to pass / passing) the test.** 라는 문장이 있다면 솔직히 당신이 대화를 하는 것이라면 to부정사를 취해야 하는 동사를 동명사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어머~~어머 재 뭐니...그것도 몰라?”라고 비웃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은 한국어도 그렇지만 그렇게 문법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가 느린 경우도 이 이유 때문이다. 너무 완벽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 문장의 답은 “**to pass**”이다. 본동사 “advise” 가 to부정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어의 숲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사의 분류가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영어의 비결 중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

### \* 동사+의문사+to부정사\*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예문을 들면

**I can't explain to you where to buy the goods.**

이 문장은 사실

**I can't explain to you where I (should) buy the goods.** 이 문장이다. 이 복문인 문장에서 주어가 “**I**” 로 일치해서 복문의 주어를 생략해주어서 위에 문장처럼 표현할 수 있다.

예외가 있는데

**IF와 WHY는 TO부정사로 만들지 않고** 복문으로 문장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I don't know if to love you. (x)** 틀린 문장이다. .

**I don't know whether to love you (or not). (o)** 는 맞는 문장이다.

**I don't know if I (should) love me. (o)** 는 맞는 문장이다.

**I don't understand why to agree on your stereotype.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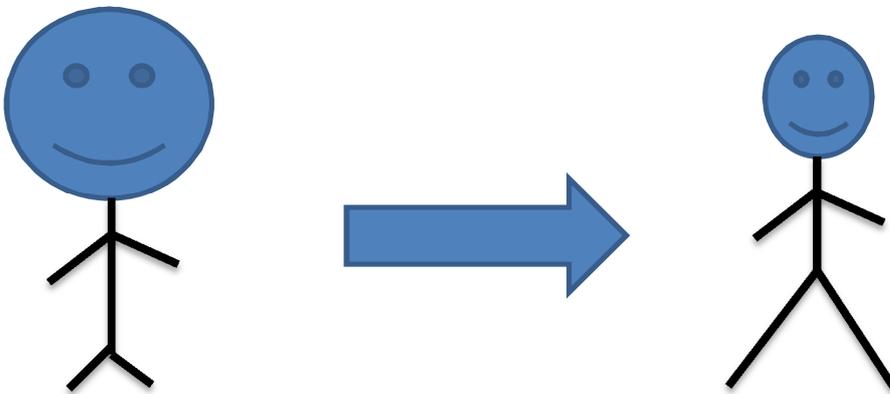
I don't understand why I (should) agree on your stereotype. (o) 이다.

**\* 가주어 It과 진주어 to부정사\***

**It is difficult to study English.** 라는 문장이 있다면 원래의 문장은

**To study English is difficult.** 이다. 기억나는가? 1형식에서 유도부사를 사용한 이유를?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어를 보기 좋게 변환하고 싶어서 유도부사를 사용한 것처럼 가주어 "IT" 역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 목적어 + to 부정사"**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화자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주어 "IT"을 사용할 때는 막연한 사람들이 주어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It is very clear to understand your opinion.** 은 일반적인 주어가 생략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이 명확하다."는 뜻이지만,

**It is very clear for me to understand your opinion.** 는 "다른 사람에게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서는 명확하게 이해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다.

이처럼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주어일 경우에는 **"for + 목적어+ to부정사"**로 표현하면

된다.

역시 예외가 있는데

**“of + 목적어+ to부정사”** 로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Bad, brave, careless, clever, cruel, foolish, good, kind, polite, rude, silly, thoughtful, wise, wrong”**

이처럼 감정 형용사를 사용한 경우에 “for” 대신에 전치사 “of”를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It is very cruel (of us/ for us) to ignore our condition.** 이 경우 “cruel”이라는 감정형 용사의 사용으로 **“of us”**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 시켜야 한다.

이로써 to부정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공부했다. 동명사도 이와 같은 구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지 동명사를 좋아하는 동사가 다르고 의미상의 주어의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제부터 동명사를 간략하게 보자.

### **\*동명사\***

이미 to부정사에 왜 동명사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명은 생략할 생각이다. 다만 몇 가지 다른 점은 꼭 외우기를 바란다.

### **\*전치사의 목적어(명사)\***

영어의 숲을 볼 때도 설명은 했지만 저 표현은 여러 파트에서 적용이 된다. 동명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자.

**I always think of being with you.** “of being” 은 “전치사+명사”의 돌연변이 형태이다. 전치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to부정사는 명사의 형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고민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말 그대로 동사를 명사처럼 표현한다** 해서 이름이 “동명사”이다. 그래서 **“전치사+동명사”**가 가능한 것이다.

**\*동명사를 취하는 본동사\***

**Admit, avoid, consider, delay, deny, dislike, enjoy, finish, give up, imagine, involve, mind, miss, Postpone, put off, risk, stand, suggest**

설명은 이미 to부정사에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신사의 품격 김도진 버전으로~ㅋ)

**\*동명사의 부정\***

“Not + 동명사” 같은 구조이다. To부정사 와~

**\*전치사 to 를 사용한 동명사구\***

일반적으로 전치사 “to”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레 to부정사가 떠오르지만 다음에 오는 문장들은 동명사구이다.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Look forward to~ing: ~학수고대하다, 기다리다**

**Be used to ~ing: ~에 익숙하다**

**Be used to R : ~를 사용하다.**

**Used to R :~하곤 했다.**

**Devote oneself to ~ing: ~에 헌신하다.**

**Object to ~ing: ~에 반대하다.**

**Resort on ~ing: 에 의존하다.**

**Free from ~ing: ~이 없는**

**Content with ~ing: ~에 만족한**

**Careful about ~ing: ~에 조심하는**

**Anxious for ~ing: ~을 열망하는**

**Intent on ~ing: ~에 열중하는**

**Aware of ~ing: ~을 알고있는**

**\*to부정사와 동명사구를 사용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Like to: ~하고 싶다. Like ~ing: ~하는 것을 즐기다**

**Try to: ~하려고 애쓰다. Try ~ing: 시험삼아 해보다.**

**Need, want, deserve: to부정사 사용시 능동의 의미, 동명사 사용시 수동의 의미: ~할 가치가 있다.**

**Remember/forget: to부정사 사용시 미래의 표현, 동명사 사용시 과거의 표현**

**Stop to: ~하는 것을 중단하다. Stop ~ing: ~하기 위해 멈추다.**

예를 들어서

**I want to stop smoking right now. 나는 지금 흡연하기 위해 멈추었다.**

**I want to stop to smoke right now. 나는 지금부터 금연을 하겠다.**

이렇게 의미가 변하게 된다.

**\*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of + 소유격+ 동명사”** 사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이 이해를 하면 된다. 전치사+명사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명사는 소유격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명사는 동사의 역할을 하면서 명사처럼 쓰여진 돌연변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of + 소유격 + 동명사”** 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I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English.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It is difficult of my understanding English.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 2개의 문장은 사실 전자의 문장이 더욱 좋은 것 같다. 후자의 문장은 조금은 어색하게 보인다.

문장이라는 것이 이렇다. 처음부터 정해져서 이것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된 것들이 관습처럼 남게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규칙이 되고 법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영어에서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인 to부정사와 동명사를 공부했다. 이 2개의 문법의 이해를 통해서 당신은 영작뿐만 아니라 말하기 역시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영어는 처음부터 긴 문장으로 탄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질문을 예상해서 하나씩 규칙에 따라 문장을 붙여서 결국에는 긴 문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To부정사와 동명사는 접속사처럼 문장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도구들이다. 접속사는 항상 주어와 동사를 필요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쓰거나 말하면 조금은 촌스럽지만 to부정사나 동명사를 사용을 함으로써 반복되는 주어의 일치를 줄이고 조금 더 세련되게 문장도 표현할 수 있고 말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어의 간지중의 간지” 인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공부하자.

## PART 8-영어 때문에 고통 받는 당신을 위해(영어의 나무-관계대명사, 관계부사)-영어의 간지

드디어 영어의 문법의 막바지에 온 당신들을 환영을 한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배우고 나면 이제 나머지 영어의 나뭇가지를 공부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문법에 대해서 나의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수능이나 토익, 토플등 각종 영어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는 이유에서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글을 통해서 시험을 위한 죽은 영어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영어를 체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필자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정보는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득이 되는 것이다. 영어를 말하고 쓰고 듣고 읽기 위해서 많은 정보는 당신에게 득이 될 뿐이다. 오늘 공부 할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화려한 문법이다. 문장에서 to부정사나 동명사를 사용한 문장은 만나게 되면 정돈된 깔끔함을 통해 마치 반듯한 청년을 느낄 수가 있는 반면에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어쩌면 당신을 유혹하는 멋진 여성의 화려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말하기를 할 때 중간중간에 당신이 관계대명사를 적용할 수 있는 말하기 실력이 된다면 당신의 영어실력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높게 상대방에게 인식된다. 그 만큼 관계대명사는 간지 중의 간지이다.

### \*관계대명사\*

선행사의 종류	주격	소유격	목적격
사람	Who	Whose	Who(m)
	That		That
사물	Which	Whose/of which	Which
	That		That
선행사 포함	What		What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표이다. 관계대명사는 왜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이름의 차이로부터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를 해야 한다. 매번 설명하는 것이지만 영어는 외국의 문법이다. 우리나라의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법을 한국어로 변환시킬 때 특별히 그 문법이 단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같다. "관계대명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석해 보자.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에 위치할 수 있는 품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면 주어와 목적어 자리를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관계대명사의 첫걸음을 띄어보자.

###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 1) 선행사가 종속절의 주어와 동일인 일 때

선행사가 사람이며 종속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who**, **that**을 사용한다. 하지만 **who**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

**I know him.**

**He is very tall.**

이 두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 **him**과 두 번째 문장의 주어 **he**가 동일인 이기 때문에

**I know him who is very tall.** 이렇게 문장을 관계대명사의 사용으로 복문으로 만들 수가 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종속절의 문장이 불완전해야 한다. **I know him who he is very tall.** (x)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시키면 관계대명사를 쓰는 의미를 상실한다. 그리고 **him**과 **he**의 중복 표현이다. 만약에 두 개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I know him and he is very tall.** 이런 식으로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 2) 선행사가 소유격인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며 종속절의 소유격과 일치하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whose** 를 사용한다.

**I know him.**

**His character is very charming.**

이 두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 **him**과 두 번째 문장의 소유격 **his**가 동일인 이기 때문에

**I know him whose character is very cool.** 이렇게 문장을 관계대명사의 사용으로 복문으로 만들 수가 있다.

관계대명사에서 소유격을 사용하게 되면 종속절의 문장이 **character is very cool** 즉 주어+동사+목적어

적어를 충족하는 완벽한 3형식 문장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격의 "that"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관계대명사로 쓰이지 않을 때 "that"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I know him that his character is very cool.** 이렇게 쓰는 것이 더욱 좋은 문장이다.

### 3) 선행사가 목적격인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며 종속절의 목적격과 일치하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who(m)**, **that** 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who(m)**을 더 많이 사용한다.

**You know him.**

**I met him last night.**

이 두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 him과 두 번째 문장의 목적어 him이 동일인 이기 때문에

**You know him who(m) I met last night.** 이렇게 문장을 관계대명사의 사용으로 복문으로 만들 수가 있다.

###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 1) 선행사가 종속절의 주어와 동일사물 일 때

선행사가 사물이며 종속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which**, **that**을 사용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which**를 더 좋아한다.

**I make the machine.**

**it is very helpful.**

이 두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 the machine과 두 번째 문장의 주어 it이 동일사물 이기 때문에

**I make the machine which is very helpful.** 이렇게 문장을 관계대명사의 사용으로 복문으로 만들 수가 있다.

## 2) 선행사가 종속절의 소유격과 동일사물 일 때

선행사가 사물이며 종속절의 소유격과 일치하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whose, of which**을 사용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whose를 더 좋아한다.

**I make the machine.**

**Its price is very reasonable.**

이 두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 the machine과 두 번째 문장의 소유격 its가 동일사물이기 때문에

**I make the machine whose price (the price of which) is very helpful.** 이렇게 문장을 관계대명사의 사용으로 복문으로 만들 수가 있다.

## 3) 선행사가 종속절의 목적격과 동일사물 일 때

선행사가 사물이며 종속절의 목적격과 일치하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which, that**을 사용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which를 더 좋아한다.

**I make the machine.**

**The customers like it very much.**

이 두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 the machine과 두 번째 문장의 소유격 its가 동일사물이기 때문에

**I make the machine which the customers like very much.** 이렇게 문장을 관계대명사의 사용으로 복문으로 만들 수가 있다.

### \*선행사를 포함 한 경우\*

선행사를 포함하게 된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한다. What를 사용한 그 절은 상식적으로 **선행사인 명사 대신에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명사가 쓰일 수 있는 문장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명사**가 명사가 쓰일 수 있는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명사절”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What she said** made me crazy. (주어)

This is exactly **what I have wanted**. (보어)

They always ignore **what I said**. (목적어)

I really depended on **what you said**. (전치사의 목적어)

### \*관계부사\*

관계부사의 특징은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대신 해 주는 것이다. 부사는 형식에서 설명을 했지만 문장을 구성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부사로 이루어진 복문은 반드시 문장이 완벽해야 한다. 이 차이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차이이다.

1) 선행사가 장소일 때는 “**where**”

This is **the place where** I met you last night.

2) 선행사가 시간일 때는 “**when**”

I remember **the time when** we said to say “good-bye”.

3) 선행사가 방법일 때는 “**how**”

관계부사 “how”를 사용할 때는 “the way how” 이런 식으로는 문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반드시 “the way” 나 “how” 중 1개만 문장에 써야 한다.

I want you to tell me **how** the machine works.

4) 선행사가 이유일 때는 “**why**”

You have to tell me **the reason why** you dislike the animal.

## PART 9-영어 때문에 고통 받는 당신을 위해(영어의 나무-접속사,비교급)-영어의 나무 마지막 파트

이제 필요한 문법은 다 배웠다 가정법과 특수구문은 회화나 영작을 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필자가 이 2개의 구문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에 당신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는 대신에 자신이 아는 것을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접속사\*

“**접속사+S+V+O**”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공부하자. 접속사의 의미만 기억하려고 노력하자. 의미는 각자 찾아보는 것으로~ 이제...나도 힘들다...TT

- 1) 등위 접속사- **And, or, but, so, for.**
- 2) 명사절- **If, whether.**
- 3) 시간- **When, as, while, as soon as, before, after, until, since.**
- 4) 목적- **So that, in order that**
- 5) 원인,이유- **Because, since, as, now that.**
- 6) 조건- **if, unless, as long as.**
- 7) 양보-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 8) 대조,역접- **however, in contrast, on the contrary, still, on the other hand.**
- 9) 첨가,보충- **in addition, moreover, furthermore, besides.**
- 10) 인과,결론- **therefore, as a result, consequently, thus, in consequence.**
- 11) 예시,비교- **for example, for instance, similarly, likewise.**
- 12) 부연,요약- **in short, in summary, in other words, in conclusion, in brief.**

## \*비교급\*

### 1) 원급 비교구문 "as+ 원급(형용사/부사/형용사+관사+명사) + as"

원급 비교구문에서는 언제 형용사를 사용하고 부사를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비교적 쉬운 구문이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나오는 as의 품사는 "부사"로 뒤에 나오는 as의 품사는 "접속사"로 이해하는 것이 문장을 영작하는데 수월하다.** 부사는 형용사와 부사를 꾸밀 수 있고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동사+목적어가 나와야 한다.

He is as **polite** as she (is polite).

He behaved as **politely** as she (did).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전자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후자는 부사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원급 비교구문이다. 어떻게 구분을 할까? 답은 생략해 보는 것이다.

He is **polite**.

He behaved **politely**.

전자는 2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어인 형용사가 와야 하고,

후자는 동사를 꾸며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사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접속사 as 뒤에 오는 중복되는 문장은 생략이 가능하다.

### 2) 비교구문 "비교급+than", "less(more)+형+than"

일반적인 비교급 구문은

< 규칙변화 >

1.일반적으로 형용사의 원급에 -er, -est

2.-e 로 끝나는 원급에는 -r, -st

3.단모음+단자음 으로 끝날땐 단자음 한번 더 쓰고 -er,-est

hot - hotter - hottest

4. 자음 + y 로 끝나는 원급 y 를 I 로 고치 고 -er, -est  
dry - drier - driest  
easy - easier - easiest

5. -y, -er, -ure, -le, -ow 로 끝나는 2 음 절 형용사에는 -er, -est  
busy - busier - busiest  
clever - cleverer - cleverest  
mature - maturer - matures

### 6. more- , most- 를 붙이는 경우

① 'a'로 시작되는 서술형용사

afraid - more afraid

② 분사형태의 형용사

tried - more tired

③ -ful, -less, -ish, -ous 끝나는 형용사

useful, useless, selfish, curious

④ 3 음절 이상의 형용사

beautiful

⑤ 형용사 + ly 형태의 부사

fluently

### < 불규칙 변화 >

1. good - better - best ( 좋은 )

well - better - best ( 건강한 , 잘 )

2. bad - worse - worst ( 나쁜 )

ill - worse - worst ( 병든 )

3. many - more - most ( 수가 많은 )

much - more - most ( 양이 많은 )

4. little - less - least ( 양이 적은 )

5. old - older - oldest ( 나이가 든, 늙은 )

old - elder - eldest ( 연상의, 순위의 )

6.late - later - latest ( 시간이 늦은)

late - latter - last ( 순서가 늦은 )

7.far - farther - farthest (거리 먼)

far - further - furthest (정도가 더욱 , 한층

[출처] [RUE 쌤의 영문법~꼭! 비교급 /형용사/부사](#) |작성자 [커피중독자 영어쌤류](#)

**The boy is taller than she (is).**

**Natural thing is more important than special thing (is).**

**The sweater is less expensive than the jean (is).**

**3) 배수사 “배수사+비교급+than”, “배수사+as +원급+ as”**

**My father`s weight is twice as heavy as I am.**

**My father`s weight is twice heavier than I am.**

배수사는 1배와 2배만 다르고 3배부터는 기수에 times만 같이 사용하면 된다.

1배- once

2배- twice

3배- three times

4배- four times

**3) 최상급 “the+최상급(~est, most~)”**

**It is the most expensive hotel in Korea.**

**A whale is the largest animal on earth.**

**This lake is deepest at this point.**

기본적으로 최상급을 만드는 공식은 "the + 최상급" 이다.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은 형용사에 ~est 를 붙이거나 most +형용사를 만들어서 표현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the"를 꼭 붙여야 한다. 예외가 있는데 "deepest" 처럼 부사의 최상급인 경우는 the를 붙이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부사 앞에 관사를 적용하면 틀린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the를 사용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한 뒤에는 마지막 문장의 구성이 "전치사+명사"인 전치사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 상식적으로 "나는 최고다"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이 분명히 "어떤 분야에서? 뭐가?"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치사+명사"인 전치사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반적인 영어의 문법을 배웠다. 내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부분의 공부는 스스로 찾아서 해보기를 권장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 영어책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문법책이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영작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4개의 파트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 책은 분명히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언어를 어렵게 접근하면 반드시 어렵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진 사고보다 몇 단계 아래로 내려가서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신의 실력은 이제 4살박이 정도의 실력인데 성인처럼 이야기 하려고 노력을 하니깐 영어의 실력이 늘지를 않는 것이다. 언제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나는 이 책이 당신의 준비기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